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인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현장 방문

- 화재 진압 상황 점검, 소방대원 안전 최우선 및 총력 대응 주문
- 주민대피소 찾아 피해 주민 위로, 2차 피해 방지에 최선 당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0일) 인천 서해구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 현장과 주민대피소를 방문하여 화재 진압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화재 현장을 찾은 윤호중 장관은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되, 현장 대원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며, 관계기관의 빈틈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 소방청, 경찰청, 인천시, 국토부 등 기관별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고열·연기와 건물 붕괴 조짐으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소방 작전에 필요한 장비와 자원을 적기에 전폭 지원하는 등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고, 현장 대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 조치 속에서 작전을 전개해달라고 지시했다.

현장 점검을 마치고 인천 신현초등학교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와 서해구청 전담 공무원들에게 주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구호물품과 식사 제공 등 현장 구호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을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총력 대응하여 화재 진압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사흘째 이어지는 유독가

스와 고열 등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사회재난실 국토산업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조정원 (044-205-6330)
		담당자	사무관	김성준 (044-205-6343)

